

명청 시기 묘족의 결혼문화 고찰*

송경애**

目 录

1. 서론
2. 묘족의 결혼풍습
 - 1) 跳月
 - 2) 坐家
 - 3) 表親婚
 - 4) 媵妾制
3. 묘족 결혼풍습의 특징
 - 1) 자유연애
 - 2) 남성 지위의 강화
 - 3) 한족 문화의 영향
4. 결론

1. 서론

중국 雲南과 貴州 일대는 예로부터 중국 소수민족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던 지역으로 苗族, 侗族, 彝族, 水族, 布依族 등 다양한 민족이 거주하던 곳이다. 특히 묘족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 인구수가 漢族, 壯族, 滿洲族, 回族 다음으로 많은 민족으로, 오랜 세월을 거쳐 이 지역에 거주하며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이어왔다.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묘족의 조상인 蚩尤는 일찍이 부족을 이끌고 황하 하류와 장강 하류의 평원지대에 거주했으나, 전쟁에

* 이 논문은 2015년도 케이씨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작성되었음.

** KC大學校 外國語學部 中國語專攻 助教授

실패한 후 유랑하기 시작하여 훗날 중국의 서남부 지역에 주로 거주해왔다.¹⁾ 그들은 평원지대에서 쫓겨나 폐쇄적이고 험난한 산간지역에 거주하면서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해왔다. 묘족의 역사와 문화가 기록된 중국 서남부 지역의 地方志와 문인들의 개인 문집 속에는 오늘날 명청 시기 묘족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명청 시기 묘족의 문화와 풍습을 기록한 작품으로 陳鼎의 「滇黔土司婚禮記」, 「滇黔紀游」, 方亨咸의 「苗俗紀聞」, 田閔의 『黔書』, 李宗昉의 『黔記』 등이 있다. 우리는 중국 서남부 지역의 지방지와 이러한 문인들의 작품을 통해 명청 시기 묘족 문화 중 그들의 독특한 결혼문화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청대 초기 사람 陳鼎은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숙부를 따라 雲南에서 지냈는데, 오랜 시간동안 雲南, 貴州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묘족의 역사와 문화, 지리에 대해 연구했다. 그는 17세 때 臨安府에 있는 龍氏 성을 가진 묘족의 수장, 즉 土司의 사위가 되어 묘족의 결혼 풍습과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이것을 「滇黔土司婚禮記」에 자세하게 기록했으며, 운남과 귀주 일대를 여행하며 「滇黔紀游」를 집필하기도 했다. 또한 方亨咸의 「苗俗紀聞」, 田閔의 『黔書』, 李宗昉의 『黔記』등도 명청 시기 묘족의 결혼문화를 엿볼 수 있는 주요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위에 언급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명청 시기 묘족의 결혼 풍습과 그 특징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묘족의 결혼풍습

1) 跳月

묘족의 跳月 활동은 그들의 가장 오래 된 결혼풍습으로 그 역사가 유구하다. 명대 弘治年間 沈庠과 趙瓚이 편찬한 『貴州圖經新志』에는 “혼인풍습에서

1) 謝謙, 「貴州黔東南西江千戶苗寨‘跳花’研究」, 中央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년, 4쪽.

남녀가 서로 모여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跳月’이라고 불렀는데 서로 좋아하게 되면 결혼을 한다.”²⁾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田雯의 『黔書』에도 “매년 이른 봄에 남녀가 들뜰에서 서로 만나는 것을 일컬어 ‘跳月’이라고 한다. 미리 평평한 곳을 선택하여 춤을 출 月場으로 삼고, 때가 되면 남녀 모두 옷을 갈아입는다. 남자가 앞에서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생황을 불면 여자는 뒤에서 방울을 흔들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데, 하루 종일 지칠 줄 모른다.”³⁾ 라고 기록하고 있다. 청대 초기 사람 陳鼎은 일찍이 묘족 즉장 土司의 사위가 되어 묘족의 결혼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각각 「滇黔土司婚禮記」와 「滇黔紀游」에 묘족들의 跳月 풍습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했다.

跳月은 혼인 풍습으로, 정월대보름날 저녁 들뜰에 꽃대를 세우고 남녀가 들에서 모이는 활동이다. 남자가 먼저 갈대로 만든 생황을 불면 여자가 이어서 큰 방울을 울리며 화답하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거나 혹은 길게 대열을 만든다. 남녀가 서로 노래로 화답하며 만약 마음이 맞으면 짝을 지어 그 자리를 떠난다.⁴⁾

묘족의 풍습에는 매년 초봄이 되면 남녀가 각각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서로 ‘跳月’을 행한다. 남자가 버들피리를 불며 앞에서 인도하면 여자는 방울을 들고 뒤에서 화답한다. 소매를 맞닿으며 팔을 붙잡고 빙빙 돌면서 각자 대열을 따라 도는데,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다. 저녁이 되면 둘이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나며 웃고 농담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새벽이 되어서야 헤어지는데 예물은 여자가 아름다운지 보고 나서 정한다.⁵⁾

2) 『中國地方志集成本』, 「貴州圖經新志」: “其俗婚娶, 男女相聚歌舞, 名曰跳月. 情意相悅者爲婚”, 長沙: 巴蜀書社書影本, 1996년, 312쪽.

3) 田雯, 『黔書』: “每歲孟春, 合男女於野, 謂之, 跳月. 預擇平壤爲月場, 及期, 男女皆更服飾. 男編竹爲蘆笙吹之面前, 女振鈴繼之於後以爲節, 并肩舞蹈回翔婉轉, 終日不倦”,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2년, 20쪽.

4) 宋景愛, 「滇黔土司婚禮記譯註」: “以跳月爲婚者, 皆不視. 跳月爲婚者, 元夕立標於野, 大會男女. 男吹蘆笙於前, 女振金鐸於後, 盤旋跳舞, 各有行列. 謳歌互答, 有洽於心, 卽奔之.”, 『中國史研究』, 83권, 2013년, 325쪽.

5) 徐興海, 「遊歷雲南的無錫旅行家-陳鼎」, 『江南文史』, 2002년, 2집, 55쪽 재인용. 陳鼎, 『黔游記』: “苗俗每歲孟春月, 男女各麗服相率跳月. 男吹蘆笙於前以爲導, 女振鐸於後以爲應.

이처럼 당시 묘족의 젊은 남녀는 봉건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남녀의 사적인 교제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던 한족과 달리 跳月을 통해 서로 자유롭게 만남의 기회를 갖고 교제했음을 알 수 있다. 젊은 남녀가 서로 만나는 활동을 ‘跳月’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학자 伍新福은 묘족들이 달이 차고 기우는 시기에 따라 노는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달이 아직 차오르지 않은 7일 이전에는 각 마을의 젊은 남녀가 무리를 지어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피리를 불며 춤과 노래를 연습한다. 그 후 보름달이 뜨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은 남녀가 함께 모여 달빛 아래에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추며 서로 교제하게 된다. 보름이 지나고 그믐날까지는 남녀가 강가의 넓고 평평한 지역에 모여 놀며 서로 좋아하는 배필을 고르게 된다.⁶⁾

묘족은 마을 밖에 젊은 미혼 남녀가 만나서 노래와 춤을 추며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 놓았다. 田雯의 『黔書』에서는 “天垣에서는 여자의 나이가 열 서너 살이 되면 대나무 집을 지어놓고 들판에서 지내다가 노랫소리를 듣고 남녀가 서로 함께 지내게 된다.”⁷⁾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장소를 ‘馬郎房’이라고 불렀는데 마랑방은 들판에 대나무로 엮어서 만든 집으로, 주로 젊은 남녀들의 약속 장소로 사용되던 곳이다. 『黔記』에서는 마랑방에 대해 “각 마을 밖에는 모두 ‘馬郎房’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다. 그 곳에서는 미혼 남녀가 늦게까지 만날 수 있다.”⁸⁾라고 했다. 이밖에도 『貴州通志』에서는 마랑방에 대해 “이웃 마을끼리 함께 빈 집을 지어놓고 馬郎房이라고 불렀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서 밤늦게까지 함께 하며 서로 마음에 들면 소를 예물로 주었다.”⁹⁾라고 기록하고 있다. 『永寧州志』에서도 다음과 같은 기

聯袂把臂，盤旋婉轉，各有往列，終日不亂。暮則挈所私歸，謔浪笑歌。比曉，乃散。聘資視女妍媸而定。”

6) 伍新福, 『苗族文化史』, 四川:四川民族出版社, 2000년, 329-331쪽.

7) 田雯, 『黔書』: “其在天垣者, 女子年近十三四, 則構竹樓, 野外處之, 聞歌而合.”,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2년 22쪽.

8) 李宗昉, 『黔記』: “各寨野外均選一房名曰馬郎房, 未婚之女晚來相聚其所”,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2년, 299쪽.

9) 『貴州通志』: “隣寨共建空房, 名曰馬郎房. 未婚嫁者, 遇晚聚會, 情稔即以牛只行聘”, 長沙: 巴

록이 있다. “남자와 묘족 여자가 함께 앉아서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打馬郎이라고 한다. 그들의 부모와 형제들은 모두 이것을 금하지 않는다. 매년 이른 봄에 남녀가 들판에서 서로 만나는 것을 跳月이라고 한다.”¹⁰⁾라고 하여 당시 묘족 미혼 남녀가 마랑방과 같이 마을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서로 노래를 주고받고 춤을 추며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跳月 활동과 같은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통해 마음에 드는 배필을 만나게 되면 양가 부모에게 알려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논하게 된다. 이 때 결혼 당사자의 의사가 결혼을 결정짓는 주된 요소가 되며 양가 부모에게 알리는 일은 단지 결혼 절차에 있어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한족과 같이 중매인을 통해 부모가 정해준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배우자를 정하게 된다.¹¹⁾ 그러나 모든 결혼이 이처럼 자유연애를 통해 성사되지는 않았다. 묘족은 지리적으로 다소 폐쇄적이고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여전히 모계씨족사회에서 행해지던 결혼풍습이 잔존하고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자유결혼이 아닌 중매인을 통해서 부모가 정해준 상대와 혼인을 하는 중매혼의 방식을 선택하기도 했다.

묘족 남녀는 跳月을 통해 서로 자유롭게 교제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났을 경우 예물을 주며 청혼하게 된다. 方亨威의 『苗俗紀聞』에서는 젊은 남녀가 주고받는 예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스스로 배필을 선택하여 우선 함께 한 후에 서로 결혼을 논의한다. 여자

蜀書社乾隆六年刻本繡印本, 1996년, 122쪽.

10) 『中國地方志民俗資料彙編, 西南卷, 貴州省』, 『永寧州志』: “男子與苗女輩耦坐私語, 名曰打馬郎, 父母兄弟皆不之禁. 每歲孟春, 合男女於野, 謂之跳月”,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1991년, 492쪽.

11) 徐家幹의 『苗疆聞見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묘족 남녀는 결혼할 때 중매인이 필요 없다. 여자가 결혼한 나이가 되면 들판에 나가 노래를 부르고 젊은 남자를 만나 서로 노래로 화답하며 마음에 들면 먼저 야합하고 예를 갖추어 결혼하지 않아도 부모가 그것을 묻지 않는다(苗人男女婚嫁不用媒妁. 女年及笄, 行歌於野, 遇有年幼男子, 互相唱和, 彼此相悅, 則先爲野合, 而隨之以奔, 父母不之問也)”,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7년, 167쪽.

의 미모를 보고 예물의 값어치를 결정하는데, 예물은 돈이나 비단이 아니라 소를 준다.¹²⁾

李宗昉의 『黔記』에서도 “서로 마음에 들면 소나 술을 예물로 주고 결혼한 지 3일 만에 친정으로 돌아간다.”¹³⁾라고 기록하고 있다. 남자가 여자에게 예물을 줄 때는 여자의 미모를 보고 예물의 값어치를 결정한다. 주로 결혼예물로 소와 술을 주는데, 이것은 여자 측 부모에게 최대한의 존경심을 표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소와 술은 이처럼 예로부터 예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¹⁴⁾ 황제가 신하에게 상급으로 하사하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끼리 예를 표하기 위한 선물로 사용되기도 했다. 묘족 남자가 여자 측에 결혼예물로 소를 주는 이유는 아마도 농경사회에서 소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귀한 동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묘족은 오랜 전란과 유랑생활을 통해 험준한 산간지역에 거주하면서 종족 번성과 생산 노동력 확보가 늘 중요시 되었다. 이로 인해 여자가 15, 6세가 되면 이미 결혼 적령기로 여겼으며, 跳月이나 馬郎房과 같은 풍습을 통해 남녀가 자유롭게 교제함으로써 직접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혼 풍습은 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중국 유교문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자유연애와 결혼 풍습은 오늘날까지 묘족 사회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2) 坐家

묘족 여인들은 일반적으로 혼례를 치른 후 2, 3일 정도만 시댁에 머무르고

12) 張潮, 『檀几叢書』, 「苗俗紀聞」: “任自上擇配, 先合而後議婚. 視女之好惡, 以定聘之高下, 聘無幣帛, 爲牛若干”,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년, 320쪽.

13) 李宗昉, 『黔記』: “歡悅者以牛酒致聘”,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2년, 299쪽.

14) 司馬遷, 『史記』, 「孟嘗君列傳」: “聞先生得錢, 卽以多具牛酒而燒券書, 何?”, 北京: 中華書局, 1985년, 2360쪽.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르게 된다. ‘坐家’는 ‘不落夫家’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풍습은 고대 모계중심사회에서 부계중심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陳鼎은 『滇黔土司婚禮記』에서 좌가 풍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혼사를 논의하여 이미 성사가 되면 남자는 여자 집에 와서 반드시 자식을 낳은 후에 친가로 돌아간다.”¹⁵⁾ 그는 또한 『滇黔紀游』에서도 “반드시 자식을 낳은 연후에 시댁으로 들어가는데, 紅苗族이 가장 심하다.”¹⁶⁾라고 했다. 『紅苗歸流圖』에서는 “반드시 아내와 함께 가야하는데 마치 보호하는 사람과 같다. 친정부모 집에서 여전히 결혼 전처럼 옷을 입고 마음대로 행동한다. 반드시 임신한 후에야 친정부모가 돌려보내는데, 이것을 ‘坐家’라고 부른다.”¹⁷⁾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남자는 결혼식을 치른 후 당분간 신부 측 집에서 함께 살아야 했다.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서야 비로소 각종 예물을 준비하여 여자 측 부모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다.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부부가 함께 동거하지 않았다. 평소에는 서로 동침하지 않고 합방할 때에만 함께 했으며 임신한 후 아이를 낳고 나서 비로소 동거하게 된다. 方亨咸은 이러한 풍습에 대해 『苗俗紀聞』에서 “결혼 후에는 같이 동침하지 않는다. 은밀히 합방한 뒤 임신하고 젖이 나온 후에야 비로소 함께 산다.”¹⁸⁾라고 기록했다.

결혼 후 2, 3일이 지난 후 친정에서 생활하는 坐家 풍습은 묘족 여성이 결혼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묘족은 예로부터 조혼의 풍습이 있어서 여자가 보통 15, 6세가 되면 모두 출가하는데, 이러한 坐家の 풍습을 통해 한동안 친정에 머물면서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갖추어야 할 덕

15) 宋景愛, 「滇黔土司婚禮記譯註」: “既成, 則男就於女, 必生子然後歸夫家.” 『中國史研究』, 83권, 2013년, 325쪽.

16) 徐興海, 「遊歷雲南的無錫旅行家-陳鼎」, 『江南文史』, 2002년, 2집, 55쪽 재인용. 陳鼎, 『黔游記』: “必生子, 然後歸夫家, 惟紅苗爲甚”

17) 阿琳, 『紅苗歸流圖』: “必有婦女偕行, 若防護焉者. 其在父母家則仍披發如未嫁時, 恣所欲爲, 必娠而後父母送之於歸, 謂之坐家”, 長沙: 岳麓書社, 2008년, 242쪽

18) 張潮, 『檀几叢書』, 「苗俗紀聞」: “婚後不同寢, 私媾俟孕以乳, 始同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년, 320쪽.

목과 살림하는 법을 익힐 수 있었다. 또한 딸이 출가하게 되면 여자 측 집안은 상대적으로 한 명의 일손이 부족하게 되는데, 출산 전까지 남자가 여자 측 집에 머물면서 결혼으로 인한 신부 측 집의 일손 부족을 미리 보상해준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출산 전까지 줄곧 친정에서만 지내는 것은 아니었다. 명절이나 농번기에는 시댁에 잠시 머물며 일손을 돕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다. 그런 다음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한 연후에 비로소 시댁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된다.

결혼하고 3개월이 지나면 신랑과 신부는 조상의 위패에 절을 하고 여러 친척들에게 정식으로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음을 알린다. 陳鼎의 「滇黔土司婚禮記」에서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친척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하는 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묘족들은 여러 姓氏가 있는데 각 족속마다 풍습이 다르고 혼인 예식도 서로 상이하다. 그 중 宋, 蔡, 羅, 龍, 鳳 다섯 성씨를 가진 족속들의 풍습과 예절이 가장 정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儀式과 항목들은 매우 복잡한데, 음악을 사용하지 않다가 혼인하고 3개월이 되어 사당에서 조상에게 인사를 드릴 때 비로소 음악을 사용하고 모든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신랑이 어른들을 알현할 때는 대나무 젓가락과 평의 깃털로 만든 부채를 初面의 禮를 갖추어 선물로 드리고, 어른들은 珠砂, 石靑, 말이나 소, 개와 돼지 등을 답례로 준다. 신부는 어른들에게 절을 할 때 대추나 밤, 잣 등을 初面의 禮를 갖춘 선물로 드리고 어른들은 峒巾, 苗錦, 보석, 비녀나 귀걸이를 신부에게 답례로 준다.¹⁹⁾

3개월이 지나면 조상 三代의 위패를 공손히 모시고 신랑과 신부, 시첩들이 함께 절하며 조상을 알현한다. 성대하게 酒筵을 베푸는데, 대청에서는 남자들이 모여서 잔치를 열고 안채에서는 여자들이 모인다. 부부는 初面의 예를 행하여 어른들에게 절을 올리고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하여 정

19) 宋景愛, 「滇黔土司婚禮記譯註」: “苗種類甚多, 而習俗各異, 婚禮亦不同, 惟宋、蔡、羅、龍、鳳五姓得其正. 其條節甚繁, 不用樂, 三月廟見, 方作樂, 大會親戚. 新郎君見長者, 用斑竹簪、雉羽扇爲贊, 長者贈以珠砂石靑牛馬犬豕. 新婦見尊者用棗栗榛松爲贊, 尊者贈以峒巾、苗錦、金寶、簪珥. 此四姓五家古例也”, 『中國史研究』, 83권, 2013년, 326쪽.

식으로 시댁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다.²⁰⁾

이처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친척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후 한 집안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해야만 비로소 시댁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坐家 풍습은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자식을 낳아야만 그 집안의 며느리로 온전히 인정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表親婚

묘족의 미혼 남녀 사이에 跳月 풍습을 통한 자유연애와 자유결혼 풍습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으나, 모계중심사회에서 행해졌던 表親婚의 풍습도 잔존하고 있었다. 표친혼은 결혼하는 남녀의 양측 부모가 형제자매 관계인 것을 말하는데, 姑舅表親婚 또는 血緣婚이라고도 한다. 표친혼은 여자 형제가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 훗날 그 딸이 장성했을 때 외삼촌이 자신의 며느리로 여자 조카를 취하는 풍습이다. 만약 딸이 없거나 혹은 남자 형제 집안에 며느리로 시집보내지 않고 다른 집안으로 딸을 시집보내려 한다면, 며느리로 주지 않는 댓가로 남자 형제에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다. 이러한 돈을 外甥錢이라고 한다. 方亨咸의 「苗俗紀聞」과 「黔南識略」에는 이러한 풍습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부모는 예물을 받지 않고 그 예물을 외삼촌에게 돌려주는데 이것을 還娘錢이라고 한다. 만약 딸이 많아서 결혼할 때 이미 한번 받았다면 다시 예물을 취하지 않는다.²¹⁾

20) 宋景愛, 「滇黔土司婚禮記譯註」: “三月, 請設三代祖宗神主, 夫婦率媵謁焉. 盛設酒筵, 大堂會男, 後堂會女, 夫婦執贄, 遍拜長者, 各受貽贈而成婦焉.” 『中國史研究』, 83권, 2013년, 333쪽.

21) 張潮, 『檀几叢書』, 「苗俗紀聞」: “父母不受聘, 聘歸舅氏, 云還娘錢. 如女多, 以一婚舅家男, 則不復取聘矣”,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년, 320쪽.

黑苗族은 혼인할 때 고모의 딸이 삼촌의 며느리로 정해진다. 만약 삼촌에게 아들이 없다면 반드시 조카를 삼촌에게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外甥錢이라고 하거나 또는 還種이라고 부른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결혼할 수 없다.²²⁾

李宗昉의 『黔記』에서는 外甥錢을 내지 못했을 경우, 그들의 자녀에게 빚이 남게지게 되며 鬼頭錢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고모에게 딸이 있으면 반드시 삼촌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外甥錢이라고 한다. 그래야 딸이 비로소 다른 배필을 만날 수 있다. 만약 외삼촌이 조카사위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조카사위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고, 조카딸과 조카사위가 모두 죽었을 경우, 그들의 자녀에게 돈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돈을 鬼頭錢이라고 한다.²³⁾

이러한 表親婚은 묘족의 대표적인 결혼 풍습의 하나로, 고대 모계중심사회에서 이어져 내려온 풍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묘족 사회에서 姑舅表親婚이 보편적으로 행해진 반면 姨表婚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즉, 여자형제의 자녀들은 같은 부모에게서 난 자녀와 마찬가지로 여겼기 때문에 자녀들끼리는 결혼시키지 않았다.²⁴⁾ 모계중심사회에서는 여자가 집안의 중심이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혈연으로 맺어진 자신의 남자형제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조카의 혼사에 있어서 외삼촌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형제자매의 자녀끼리 결혼시킴으로써 한 집안의 결속을 다지고 家産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딸을 출가시킨 후 이에 따른 노동력 손실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훗날 조카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데려옴으로써 보상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모계중심사회에서 점차적으로 부계중심사회로 변모되면서

22) 愛必達主編, 『黔南識略』: “黑苗婚姻, 姑之女定爲舅媳, 若舅無子, 必重獻於舅, 謂之外甥錢, 又名還種, 否則終生不能嫁”,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2년, 105쪽.

23) 李宗昉, 『黔記』: “姑有女必重賄於舅, 名外甥錢, 其女方能別配外氏向婿索頭錢, 倘婿無力措辦, 則將女改適有婿, 女皆死者, 向其子索之, 名鬼頭錢”,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2년, 299쪽.

24) 韋啓光, 朱文東, 『中國苗族婚俗』,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1년, 44쪽.

남성의 권위가 점차 강화되고, 표친혼으로 인한 자녀들의 건강이상과 돌연변이 발생이 문제가 되자, 清代에는 표친혼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기도 했다.²⁵⁾ 이러한 표친혼의 결혼 풍습은 청대부터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외진 지역에서 거주했던 묘족 사회에서는 여전히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4) 媵妾制

媵妾은 좋은 집안으로 시집갈 때 데리고 가는 侍妾을 가리키는데, 중국 周나라 혼인풍습에도 媵妾制가 있어 제후가 아내를 맞이할 때 신부가 본인 외에 여자조카, 여동생, 신부와 같은 姓氏를 가진 두 명의 여성과 이들 네 명을 모시는 또 다른 네 명의 여자, 즉 모두 8명의 시첩을 혼수로 준비했다. 이러한 등첩제가 명청 시기 묘족들의 결혼 풍습에서도 행해지고 있었다. 陳鼎은 「滇黔土司婚禮記」에서 “좌우 양측으로 시집을 때 데리고 온 네 명의 시첩들을 배치하였고, 각 시첩들마다 모두 네 명의 시녀와 나이 든 아주머니가 한 사람씩 딸려 있다.²⁶⁾”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가 묘족 족장의 딸과 혼인했을 때 8명의 시첩도 함께 맞이했음을 알 수 있다. 陳鼎은 「滇黔土司婚禮記」에서 시첩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날이 저물어 장모가 돌아가자 어머니도 방으로 들어가셨고 아내는 두 개의 촛불을 들고 나를 이끌고 시첩이 있는 방에 가서 자도록 했다. 내가 왜냐고 묻자, 아내는 “저희 집안의 가정교육에서는 만약 여자가 시집간 후 반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시첩들에게 남편을 시중들게 하여 서둘러 아들을 낳도록 기원합니다. 이제 제가 서방님을 시중든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蘭衍 언니가 나이가 많으니 먼저

25) 『中國地方志民俗資料彙編, 西南卷, 貴州省』, 「禁革苗俗告示」: “婚禮多有錯失, 如姑舅表婚, 特申令禁革”,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1991년, 825쪽.

26) 宋景愛, 「滇黔土司婚禮記譯註」: “左右各分貯四媵, 媵各侍女四人, 老嫗一人.”, 『中國史研究』, 83권, 2013년, 322쪽.

언니에게 서방님을 시중들게 하려고 어머니가 화촉을 보내 온 것입니다. (중략) 이런 까닭에 어머니가 日前에 그렇게 조바심 낸 것도 바로 제가 임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시첩의 방에 가서 잠을 잤다.(중략)이 때부터 매번 이틀 간격으로 蘭衍이 와서 나를 시중들었고 새벽에 닭이 처음 울 때 돌아갔다. 이것이 바로 『詩經』에서 말하는 ‘밤에 날이 밝기 전에 돌아가는 사람’이란 뜻이다. 두 달 후 蘭衍이 임신하지 않자 장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花燭과 음식을 가져와서 이번에는 甄姑에게 나를 시중들도록 했다.²⁷⁾

시첩들은 시집은 후 신랑과 신부를 보필하고 신부와 함께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을 담당했다. 만약 신부가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을 경우, 신부를 대신해서 아이를 낳아 가문의 대를 잇는 역할도 담당했다. 묘족의 결혼 풍습에는 모계중심사회의 원시적인 결혼풍습 뿐만 아니라 이처럼 상류층의 경우 봉건예교의 영향 하에 남성의 권위가 점차 강화되어 여성이 남성의 부속물로 여겨졌던 多妻制의 풍습도 함께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3. 묘족 결혼풍습의 특징

1) 자유연애

묘족은 폐쇄적인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씨족사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 외부세계의 문화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왔다. 그들은 주로 산간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사회적,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고 한족의 봉건

27) 宋景愛, 「滇黔土司婚禮記譯註」: “日暮, 外姑去, 家慈亦入, 內子攜雙燭引余寢下房, 余曰: “何爲者?” 內子曰: “寒門家教, 凡女子適人, 半載不孕, 卽令媵妾入值, 冀早生子. 今妾空侍巾櫛六閱月矣. 蘭姊長, 當首入侍, 故家慈送花燭來耳. (中略) 故家慈前者之皇皇, 爲妾之不娠也.” 予方悟, 乃就下房寢.... 自是間兩日, 蘭必入值, 至雞初鳴, 卽去. 《詩》所謂“戴星而往還者”是也. 兩月, 蘭不孕, 內母如前攜花燭酒筵來, 送甄姑入值.” 『中國史研究』, 83권, 2013년, 337-338 쪽.

예교의 영향에서 다소 소외되어 있었다. 자유연애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부모의 뜻에 따라 집안 환경이 비슷한 배우자와 결혼해야만 했던 한족에 비해 묘족의 결혼문화는 대부분 자유연애를 통한 자유결혼이 주를 이루었다. 비록 중매인을 통해 부모가 신분에 걸 맞는 배우자를 정해주는 중매혼 방식을 택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젊은 남녀는 자신이 직접 배우자를 선택했다. 方亨威의 『苗俗紀聞』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혼인은 중매인이 없다. 가정을 이루지 않은 장성한 남자가 매년 6월 6일 정오에 산에 올라 사방을 바라보며 나뭇잎을 불어 소리를 내면 곧 신랑감이 도착한 줄 알았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함께 무리를 지어 그를 따른다.”²⁸⁾ 『紅苗歸流圖』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초봄이 이르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등에 바구니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 나무를 취한다는 명목 하에 서로 수풀사이를 오가며 함께 山歌를 부른다. (중략) 서로 노래로 화합하며 즐거워하다가 하나가 된다. 그런 연후에 매파를 연결하여 선물을 보낸다.”²⁹⁾ 매파를 보내는 일은 이미 젊은 남녀가 결혼을 약속한 이후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 혼인을 청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묘족 젊은 남녀는 자유연애를 통해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와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부모로부터 결혼에 대해 간섭을 받지 않았다.

2) 남성 지위의 강화

묘족은 모계씨족사회의 오랜 된 풍습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명청 시기에 이르러 사회 경제가 발달하고 中原의 한족문화가 남쪽 지방까지 전해지기 시

28) 張潮, 『檀几叢書』, 「苗俗紀聞」: “其婚也, 無媒妁, 男子莊而無室者, 以每年六月六日午, 悉登山四望, 吹樹葉作嘯嘯聲, 則知爲馬郎至矣. 未字之女, 群往從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년, 320쪽.

29) 阿琳, 『紅苗歸流圖』: “至初春時, 男女未婚嫁者皆盛服飾, 負背籠登山, 以樵采爲名, 往來林麓間, 相對唱山歌...唱相協者即相悅而苟合焉. 然後挽媒行聘.” 長沙: 岳麓書社, 2008년, 241쪽.

작하면서 점차적으로 남성의 권위가 강화되고 남성중심의 갖가지 풍습들도 행해지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媵妾制라고 할 수 있다. 묘족 여인들은 결혼을 할 때 여러 명의 시첩을 데리고 시집을 가게 된다. 모든 사람이 시첩을 데리고 출가하지는 않지만, 부귀한 집안의 경우 대부분 시첩을 데리고 시집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 묘족 여성들은 출가한 후에 한족과 마찬가지로 시부모와 남편을 예로써 공경하고 부녀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만 했다. 만약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거나 어겼을 경우는 질타를 받게 된다. 「滇黔土司婚禮記」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여러 시첩들과 정실부인은 항상 함께 행동하는데 서로 장난치거나 도박을 하지 않아야 한다. 남자 주인을 보면 감히 앉아있지 말고 항상 옆에 서서 하루 종일 시중들어야 하며 태만하거나 오만한 기색을 내비쳐서는 안 된다. 30)

시첩들이 만약 주인을 거역하여 언짢게 만들면 여자 집사는 시첩들의 하의를 벗기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호되게 매질을 하며 추호도 용서하지 않는다. 31)

남성의 지위가 강화됨에 따라 男兒 선호 경향도 나타났다. 시부모를 시중을 드는데도 아들을 낳은 사람과 딸을 낳은 사람,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이 차별대우를 받기도 했다. 陳鼎은 「滇黔土司婚禮記」에서 “만약 아들을 낳았으면 연속 삼일동안 시중들고 여자아이를 낳았으면 이틀을 시중들고 아이를 낳지 못했으면 하루를 시중드는데, 순서에 따라 돌아가며 하되 마음대로 순서를 바꾸거나 날짜를 바꿔서는 안 된다. 32) 라고 기록했다. 여자가 결혼하고 시간

30) 宋景愛, 「滇黔土司婚禮記譯註」: “諸媵與主婦, 常同坐起, 或嬉戲投博皆勿論. 見主人則不敢坐, 常侍立終日, 不敢生怠傲色.” 『中國史研究』, 83권, 2013년, 344쪽.

31) 宋景愛, 「滇黔土司婚禮記譯註」: “媵者或逢怒主人, 室老必勒媵者去其下衣, 當庭而痛扑之, 毋赦也.” 『中國史研究』, 83권, 2013년, 344쪽.

32) 宋景愛, 「滇黔土司婚禮記譯註」: “生子者連三日, 女者二日, 未生者一日, 次第以行, 無敢或紊, 皆室老主之.” 『中國史研究』, 83권, 2013년, 344쪽.

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시첩들을 통해 가문의 대를 잇도록 했다. 陳鼎의 「滇黔土司婚禮記」에는 또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아내가 말하기를 저희 집안의 가정교육에서는 만약 여자가 시집간 후 반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시첩들에게 남편을 시중들게 하여 서둘러 아들을 낳도록 기원합니다. (중략) 저희 마을의 풍습에는 남자가 결혼하면 일 년 내에 아들을 낳기를 바라는데, 만약 아들을 낳지 못하면 대를 잇기 어렵기 때문이지요.³³⁾

사회가 발달할수록 남성의 노동력은 가정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천이 된다. 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집안의 대를 잇고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 남아 선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여성은 더 이상 집안에서 결정권을 갖지 못하게 되고 가정의 大小事는 대부분 남성에게 의해 결정되기 시작한다. 명청 시기 묘족 사회는 모계씨족사회에서 성행되었던 表親婚, 坐家 풍습과 함께 이처럼 남성의 권위가 강화되고 媵妾制와 남아선호 경향이 두드러진 부계씨족사회의 특징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한족 문화의 영향

명청 시기 묘족의 결혼풍습 속에는 한족 문화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소수민족들의 혼례 의식은 비교적 간단하고 검소했으나 남성 위주의 의식이 점차로 강화되면서 혼례의식의 규모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陳鼎은 「滇黔土司婚禮記」에서 묘족의 결혼예식이 한족의 예식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기록했다.

오늘날 雲南과 貴州 일대 宋, 蔡, 羅, 鷺氏 가문의 묘족들은 바로 그들의

33) 宋景愛, 「滇黔土司婚禮記譯註」: “內子曰:” 寒門家教, 凡女子適人, 半載不孕, 卽令媵妾入值, 冀早生子. (中略) 敝鄉風俗, 期一年舉子, 不舉則嗣續艱矣..”, 『中國史研究』, 83권, 2013년, 337-338쪽.

후손들이다. 이들 네 가문의 모자와 복식, 冠婚喪祭 禮式들은 모두 周나라의 禮儀를 따른 것이다. 음력 11월이 일 년의 첫 달이 되며, 결혼은 중매쟁이의 말을 중시하여 六禮를 모두 갖춘 연후에야 비로소 성사될 수 있다. 34)

이들 네 가문은 대대손손 서로 通婚하였으며 만약 집안의 정실이 낳은 맏딸이 출가하여 다른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면 반드시 여덟 명의 여자를 함께 媵妾으로 데려갔다. 이것은 고대 제후들이 아홉 명의 여자에게 장가들었던 풍습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시첩으로 함께 온 여자들은 같은 성을 가진 수양딸이나 혹은 좋은 집안에서 간택한 여성, 또는 庶出 신분으로, 적계 족속의 여자는 시첩이 될 수 없다. 중국 사대부 가문의 정실부인이 낳은 맏아들이 이들 네 가문의 관리 집안의 맏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35)

나는 어릴 적부터 宣慰土司 父子에게 문장실력을 인정을 받아 그의 맏딸과 혼인을 허락받았는데 問名, 拜允, 納采, 下聘 및 親迎하여 기러기를 드리는 것은 모두 周禮를 따른 것이다. 36)

묘족의 귀족집안 여성이 여덟 명의 여자를 데리고 시집을 가는 등첩제는 중국 고대 제후들의 결혼풍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결혼식도 모두 周나라의 의례를 따라 六禮의 예를 갖추어서 행했음을 알 수 있다. 問名은 남자측이 중매인을 통해 여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묻는 것이며, 여자 측의 생년월일을 중매쟁이가 남자 측에게 전하면 남자 측에서는 점을 쳐서 서로 궁합을 본다. 남녀가 서로 궁합이 잘 맞으면 3일이 지난 후 중매쟁이를 통해 돈과 예물, 술과 고기를 여자 측 집으로 보내 혼인을 결정한다. 이것을 拜允이라고 한다.

34) 宋景愛, 「滇黔土司婚禮記譯註」: “今滇黔之間, 有宋家、蔡家、羅家、鷺家之苗, 卽其裔也. 四家之冠裳服飾, 冠婚喪祭, 一秉周禮. 以十一月建子爲歲首, 婚姻重媒妁, 備六禮, 然後成.”, 『中國史研究』, 83권, 2013년, 318-319쪽.

35) 宋景愛, 「滇黔土司婚禮記譯註」: “四家世爲姻好, 嫁嫡長女爲嫡長婦, 必一媵八人, 古諸侯一娶九女之遺意也. 然所媵或養同姓, 或選良家, 或庶產, 嫡女則不能矣. 中國士大夫嫡長子娶四家長官嫡長女亦然.”, 『中國史研究』, 83권, 2013년, 319쪽.

36) 宋景愛, 「滇黔土司婚禮記譯註」: “余幼以文字見知於宣慰父子, 以嫡長女許字, 問名、拜允、納采、下聘, 以及親迎奠雁, 一遵周禮”, 『中國史研究』, 83권, 2013년, 320쪽.

納采는 남자측이 중매인을 통해 여자 측에 청혼하는 것이고, 下聘은 정혼할 때 남자 측 집안에서 여자 측 집안에 보내는 예물을 말한다. 또한 親迎은 신랑이 친히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이하는 의례이다. 이 모든 것은 혼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六禮 가운데 하나로서, 周禮에 따라 거행한 것이다. 이밖에도 陳鼎은 「滇黔土司婚禮記」에서 묘족 중 귀한 가문의 여인들은 한족들에게서 행해졌던 전족 풍습의 영향을 받아 어릴 적부터 발을 싸매었다고 기록했다.

관리 집안의 여식들은 대부분 발을 싸매고 있으나 일반 백성들은 일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 발을 싸매지 않는다. 싸매는 방법은 아주 쉬운데 산에 있는 '위령산'이라고 하는 들풀을 가져다가 뿌리의 즙을 내어 달여서 발을 씻으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점점 아주 예쁘고 작은 발이 된다.³⁷⁾

陳鼎은 한족 문화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덕행들이 묘족 사회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묘족 여성의 덕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칭송하기도 했다.

아! 이것은 참으로 三代의 예로다! 中原은 이러한 예를 잃었는데 변경 지역에서 아직도 여전히 보존되어지고 있는지 몰랐구나! 예로부터 이르기를 '禮가 사라지면 민간에서 찾게 된다.'라고 하였다. 지금은 민간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을 묘족이 살고 있는 미개한 지역에서 보존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스럽게 하는가? (중략) 아! 미개한 묘족의 이러한 禮는 中原 華夏지역처럼 모두 사라지지 않았구나! 아! 龍氏의 부귀함이 漢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대대손손 사라지지 않고 지켜진 것은 견고한 갑옷이나 예리한 兵器에 의지한 것이 아니로다. 그들이 의지한 것은 대대손손 이어진 德行이다. 오늘날 그들이 낳은 여자들이 이처럼 부녀자의 도리를 극진히 다하고 있으니 그 집안의 가정교육이 훌륭한 것을 알 수 있도다. 여자가 만약 부녀자의 도리를 다할 수 있다면

37) 宋景愛, 「滇黔土司婚禮記譯註」: “長官家女有縛足者, 民間多不縛, 便於工作也. 其縛也甚易, 山中有草曰威靈仙者, 取其根汁煎濯之, 不數日而步步金蓮矣.” 『中國史研究』, 83권, 2013년, 326쪽.

아이들도 역시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덕행도 세울 수 있게 되니 어찌 부귀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38)

陳鼎은 비록 묘족이 한족에 비해 미개하고 낙후된 민족이지만 中原의 禮가 부녀자의 행실과 덕행 속에 여전히 행해지고 있고, 더 나아가 자녀교육을 통해 후손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칭송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한족의 문화가 묘족의 상류층에 전파되어 儀禮와 언어, 문자 등 정신적인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명청 시기 중국 서남지역의 地方志와 陳鼎 「滇黔土司婚禮記」, 「滇黔紀游」, 方亨咸 「苗俗紀聞」, 田閔 『黔書』, 李宗昉 『黔記』 등의 문헌을 통해 명청 시기 묘족의 결혼문화와 풍습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묘족의 결혼풍습에는 여전히 모계씨족사회의 원시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다. 跳月과 馬郎房과 같은 풍습은 당시 묘족들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연애방식과 결혼문화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여자 형제와 남자형제의 자녀들끼리 결혼시키는 表親婚 제도와 결혼 후 출산 전까지 친정에 머무르며 생활하는 坐家의 풍습은 모계중심사회에서 행해졌던 풍습들이 묘족 사회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명청 시기 묘족 사회에는 한족의 봉건예교의 문화적 영향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남성의 권위가 강조되고 여성이 남성의 부속물로 여겨졌던 한족의 봉건예교 사상은 묘족 사회 상류층의 결혼문화 속에 나타나있다.

38) 宋景愛, 「滇黔土司婚禮記譯註」: “噫! 此真三代之禮也。不意中原絕響, 乃在邊徼。古語云: ‘禮失而求諸野’, 今野不可求, 乃在苗蠻之中, 亦可慨矣。(中略) 嗟乎! 苗蠻之有禮, 不如諸夏之亡也。嗟乎! 龍氏富貴, 自漢迄今矣, 其世守勿失者, 非有堅甲利兵之足恃也。所恃者, 世有其德耳。今其所產女, 能盡婦道如此, 則其家教之善可知矣。夫女能盡婦道, 子能盡子職, 則德立矣, 又何有富貴之不久且遠哉?”, 『中國史研究』, 83권, 2013년, 344-345쪽.

시첩을 거느리고 출가하는 등첩제도와 결혼 예식에서 행해진 六禮, 결혼 후에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갖가지 규범들은 한족 유교문화 권에서 행해졌던 내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당시 묘족 대부분이 지리적으로 낙후되고 폐쇄적인 곳에 거주하고 있어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고수해왔지만, 묘족의 상류층에는 이미 결혼풍습과 규범에 있어서 한족의 예교문화가 널리 전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85년.
- 『中國地方志集成本』, 長沙: 巴蜀書社書影本, 1996년.
- 『貴州通志』, 長沙: 巴蜀書社乾隆六年刻本翻印本, 1996년.
- 『中國地方志民俗資料彙編, 西南卷, 貴州省』,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1991년.
- 田雯, 『黔書』,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2년.
- 李宗昉, 『黔記』,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2년.
- 張潮, 『檀几叢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년.
- 張潮, 『昭代叢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년.
- 伍新福, 『苗族文化史』, 四川: 四川民族出版社, 2000년.
- 徐家幹, 『苗疆聞見錄』,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7년.
- 阿琳, 『紅苗歸流圖』, 長沙: 岳麓書社, 2008년.
- 愛必達主編, 『黔南識略』,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2년.
- 韋啓光, 朱文東, 『中國苗族婚俗』, 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1년.
- 謝謙, 「貴州黔東南西江千戶苗寨‘跳花’研究」, 中央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년.
- 宋景愛, 「滇黔土司婚禮記譯註」, 『中國史研究』, 83권, 2013년.
- 胡啓勇, 「苗族傳統婚戀倫理文化探析」, 『貴州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2期, 2013년.
- 徐興海, 「遊歷雲南的無錫旅行家-陳鼎」, 『江南文史』, 2집, 2002년.

Abstract

The study of Hmong' marriage culture in the Ming Qing Dynasty

Song, Kyung-ae

The whole Yun Nan and Zui Zhou region was where Chinese ethnic minorities have been distributed over a wide area from the past and where various ethnic groups as Miao zu, Dong zu, Yi zu, Shui zu, and Bu Yi zu have resided in. Specially, Miao zu is the ethnic group with the greatest number of population followed by Han zu, Zang zu, Manchu zu, and Hui zu among minorities in China, and they have maintained their own unique culture and tradition while residing in this region for a long time. The culture and custom of marriage of Miao zu in Ming, Qing dynasty are well explained in literatures as di fang zhi and chen ding 「dian qian tu si hun li ji」, 「dian qian ji you」, fang ting xian 「miao su ji wen」, tian min 「qian shu」, and li zong fang 「qian ji」. Traces of prehistoric culture of the matrilineal clan society are still remained in the marriage custom of Miao zu. Customs as tiao yue and ma lang fang are representing the free and open dating style and marriage culture of Miao zu of the time well. Also, it was identified that customs that have been implemented in matrilineal clan society are still remained through the bioa qin hun system of marrying children of sister and brother together and custom of zuo jia of living in married woman's parents home before giving childbirth after marriage. However, women could not be completely free from cultural influence of the Feudal yeyo of Han Chinese in Miao zu society during the MingQing dynasty. The Feudal yeyo ideology of Han Chinese that emphasized authority of men and considered women as belonging of men is manifested in marriage culture of the upper class of Miao zu society. The Deungcheop system of having and getting married with a concubine, the liu yi conducted in wedding ceremony, and various kinds of norms required by women after marriage are similar to the contents that have been carried out by the Han Chinese Confucian culture. Even though Miao zu was relatively less affected by the feudal Confucianism culture compare to other ethnic minorities because the

residential area of Mio zu at the time was located in deteriorated and remote area, but Confucianism culture was widely disseminated already in marriage custom and system of the upper class of Mio zu.

Key words : Ming Qing Dynasty, Hmong, marriage culture, Chen Ding, Tiao Yue

투 고 일 : 2016. 1. 10. / 심 사 일 : 2016. 1. 15.~ 2016. 2. 15. / 게재확정일 : 2016. 2. 16.